



두바이관광청, 두바이 엑스포 필수 코스 소개

두바이관광청은 10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열리는 2020 두바이 엑스포에서 놓치면 아쉬울 필수 코스들을 소개했다.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알 와슬 플라자를 비롯해, 한국관이 있는 이동성 파빌리온, 엑스포 부지 안에 세워진 55m 높이의 하늘정원, 13m 높이의 구조물 벽으로 153개의 소형 파도가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워터 피쳐 등이 그것이다. 두바이관광청 관계자는 “이번 두바이 엑스포는 191개 참가국을 비롯해 다국적 기업, 교육 기관 등 모두 200개가 넘는 파빌리온이 운영된다”면서 “매일 펼쳐지는 60개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와 200곳이 넘는 레스토랑이 세계 각국의 음식을 선보여 두바이가 필수 관광지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관광청 관광공사



태국정부 5대 유명 관광지 개방

태국 정부는 10월부터 방콕과 치앙마이 등 5개 유명 관광지를 해외 관광객들에게 재개방했다. 태국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를 맞아 10월 1일 방콕 치앙마이 등 유명 관광지 5개 지역에 다시 관광객을 받게 됐다. 이 같은 관광 재개 방침은 ‘푸켓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푸켓 주민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7~8월 두 달간 2만6천명가량이 해외에서 푸켓으로 입국했고, 이로 인한 관광업계 수입은 16억6천만(약 57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포르투갈관광청, ‘다양성의 제비’ 띄웠다

포르투갈관광청은 포르투갈 도자기 브랜드인 보르달로 핀헤이로와 협업을 통해 ‘다양성의 제비’(Swallow of Diversity)라는 상징을 새롭게 발표했다.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출발과 귀환의 새’로 여겨지는 제비는 안식처, 조화, 행복, 번영뿐 아니라 사랑, 충성심 및 충절을 상징하는 길조로 알려져 있다. 포르투갈관광청 관계자는 “제비는 포르투갈을 방문하고 항상 이곳을 다시 찾는 수많은 관광객처럼 겨울에 이주했다가 여름에 돌아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포르투갈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 웹툰 '간 떨어지는 동거' 싱가포르 갔다

싱가포르관광청은 싱가포르 여행을 주제로 한 웹툰 ‘여우담: 스위트싱가포르’를 네이버 웹툰을 통해 연재하고 있다. 싱가포르관광청은 매년 여름 ‘싱가포르와 썸을 탄다’는 뜻의 썸싱 페스티벌을 열고 있으며, 이번 웹툰은 썸싱 페스티벌을 기념하기 위해 8월 말부터 10월 13일까지 총 8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다. ‘여우담: 스위트싱가포르’는 인기리에 연재된 나 작가의 웹툰 ‘간 떨어지는 동거’의 속편으로, 구미호에서 완벽한 인간으로 변모한 신우여와 사회 초년생이 된 이담이 싱가포르로 첫 커플 해외여행을 떠나 달콤한 로맨스를 펼치는 이야기다. 웹툰에는 두 주인공이 창이 공항, 호커 센터, 멀라이언 파크, 센토사섬 등 싱가포르의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에어택시를 타고 현지 음식을 맛보는 등 싱가포르를 제대로 즐기는 모습이 연출됐다.



관광공사, '혼행족' 증가에 걸기여행 책자 발간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나 홀로 여행하는 ‘혼행족’이 늘어남에 따라 강릉시, 인천시와 걷기 여행 코스 및 관광지 정보를 안내하는 책자 ‘걸어야 보이는 강릉’과 ‘걸어야 보이는 인천’을 제작했다. 이 책자는 지역 관광안내소와 숙박업소 등에 배포되며 관광공사 걷기 여행 누리집 ‘두루누리’에서도 볼 수 있다.



필리핀 관광부 “팬데믹 이후엔 필리핀 주목”

필리핀이 포브스 매거진이 최근 발표한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여행지 톱7’에 포함됐다. 필리핀 관광부에 따르면 포브스는 필리핀을 비롯해 조지아, 슬로베니아, 튀니지, 에티오피아, 이란, 미얀마 등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역사적인 유적지, 매혹적인 문화 체험 등의 매력을 보유한 7개국의 여행지들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지로 선정했다. 필리핀 관광부 관계자는 “아름다운 해변과 웅장한 산세, 세계문화유산으로 가득한 장소가 여행객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 팰리스, 제철 식재료 활용한 가을 신메뉴 내놔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최상급 호텔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다채로운 시그니처 메뉴들을 11월 30일까지 선보인다. '이타닉 가든'에서는 한식 코스 레스토랑 특유의 플레이팅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 '더 그레이트 홍연'에서는 딤섬 메뉴를 특화해 중국 본토 출신의 왕시보 셰프가 선보이는 5가지의 스페셜 딤섬을 새롭게 선보인다.



롯데호텔, 바리스타·소믈리에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롯데호텔은 9월부터 서울 잠실에 있는 서비스 아카데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간 자격증 취득 과정을 열고 있다. 바리스타 자격 과정(24시간)과 소믈리에 자격 과정(24시간), 서비스강사 자격 과정(16시간)이 있다. 롯데호텔이 2015년 설립한 서비스 아카데미는 호텔 직원뿐 아니라 외부 기업 대상 교육도 진행하는 서비스 교육 전문기관이다. 롯데호텔 월드 지하 1층에 6개 강의장, 1개 전산실, 2개의 객실 및 식음 실습장, 휴게 라운지 등의 시설을 갖췄다.

코오롱, 호텔 어메니티 다회용으로 교체

코오롱LS는 자사 운영 호텔 3곳의 객실 일회용 어메니티를 친환경 다회용으로 교체하고 있다. 대상 호텔은 경주 코오롱호텔, 서울 호텔 카푸치노, 부산 코오롱 씨클라우드호텔이다. 코오롱호텔과 호텔 카푸치노는 전 객실 어메니티를 대용량 다회용 디스펜서형 어메니티로 바꿨다. 코오롱 씨클라우드호텔은 올해 연말까지 교체한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반려견 케이크 출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수의사와 호텔 파티쉐가 협업해 만든 최고급 반려견 디저트 '펫 케이크'를 출시했다. 반려견의 건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케이크로, 예약 시 반려견 기본 정보, 알레르기 유무, 건강 고민 등이 포함된 주문서를 제출하면 수의사의 건강 코멘트와 함께 제공한다. 특히 음식 재료는 사람이 섭취 가능한 휴먼 그레이트 등급을 엄선해 사용했다.



울릉도 대형 카페리선 취항

경북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선이 취항했다. 울릉크루즈1호는 길이 170m, 폭 26m, 9층 1만9천 888t인 대형 카페리선이다. 승선 인원은 1천200명, 선적 화물량은 7천500t이다. 2017년 7월 건조돼 전북 군산과 중국 스타오항을 오가는 노선에 투입됐다가 최근 울릉크루즈에 인수됐다. 출항 시간은 포항 영일만항 오후 11시, 울릉 사동항 낮 12시 30분이다. 편도 운항 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기존 여객선(3시간대)보다 시간은 더 걸린다.



"열차 승차권 전달, 이제 문자와 카톡으로도"

앞으로 열차 승차권을 모바일 앱 '코레일톡'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 방법을 개선했다. 고령의 부모님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승차권을 대신 예약하기가 간편해지는 것이다. 잘못 전송한 경우 전달한 승차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단, 열차 출발이 임박한 10분 전에는 회수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